

‘불행 중 다행?’... 스팩 우회상장 덕에 상폐 건수 줄었다

예고된 붕괴 ‘스팩’

〈중〉 합병·청산 사례 ‘뚝’

최근 상폐 스팩 건수 감소세
올 들어선 단 한 곳만 상폐
합병 무산땀 받기인 피해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해 청산된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팩이 시간에 쫓겨 양질의 기업을 고르지 못하거나 합병에 실패하면 단기 투자 수익을 노리고 높은 가격에 사들인 투자자나 발기인인 증권사는 큰 피해를 입는다. 여러 스팩주가 연달아 급등세를 보이며 ‘거품’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불행 중 다행’으로 해석된다.

◆상폐된 스팩 올해 1건으로 ‘뚝’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상장폐지된 스팩은 1곳으로

〈연도별 스팩 신규상장·합병·청산 건수〉

연도	신규상장	합병상장	청산
2017	20	21	8
2018	20	11	15
2019	30	11	5
2020	19	17	7
2021	11	4	1

2021년은 5월까지 기준.

/한국거래소

조사됐다. 존립기한 만기 6개월을 남기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상장에심청구를 하지 않아 지난 1월 상폐된 한국제7호스팩이 마지막이다.

상폐 건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상폐된 스팩은 2018년 15건에 달했으나 2019년 3분의 1인 5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해는 신한제7호스팩, 한국제7호스팩 등 총 7곳이 합병대상을 찾지 못해 상폐됐다.

그만큼 합병 타깃을 찾는 게 쉬웠다고도 볼 수 있다. 스팩은 상장 후 3개

월 안에 합병할 기업을 찾지 못하면 청산 절차를 밟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스팩은 합병 기업을 찾지 못했을 때 상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상폐 건수가 줄어든 것은 스팩을 활용한 우회상장이 활성화된 정황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스팩을 통해 상장한 기업은 올해 들어 총 4곳이다. 일승, 현대무백스, 윈바이오젠, 제이시스메디칼이 스팩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스팩 상장 기업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11곳을 기

록했고 지난해는 17곳으로 조사됐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스팩 제도 도입 11년째를 맞았다. 2010년 처음으로 21개 스팩이 상장된 후 이날까지 총 197개 스팩(유가증권시장 3사, 코스닥시장 194사)이 상장됐다. 존속기한 안에 합병에 성공한 스팩은 95개, 성공하지 못해 상장 폐지된 스팩은 51개다.

◆4개 스팩, 연내 합병대상 찾아야

현재 국내 코스닥 시장에는 스팩 57개가 상장돼 있으며 53개가 거래 중이다. 2018년에 생겨난 스팩 중 현재 합병상장 하지 않은 스팩은 총 6개. 이 가운데 삼성스팩2호와 상상인인안1호스팩은 각각 비상장법인인 엔피, 비투엔과 합병을 발표했다. 나머지 SK4호스팩, 키움제5호스팩, 하나머스트제6호스팩, 한국제8호스팩 등은 아직 소식이 잠잠하다. 이들은 청산 절차를 밟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다.

최근 벌어진 스팩 급등세는 이들에게도 반영됐다.

가격 제한폭(30%)까지 치솟았던 한국제8호스팩은 곧바로 1일 11.11% 급락했다. 함께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던 SK4호스팩은 22.63% 치솟으며 급등세를 이어갔다. 키움제5호스팩(-14.50%)과 하나머스트제6호스팩(-3.11%)은 내림세를 보였다. 이들은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할 경우 올해 청산을 앞두고 있다.

특히 한국제8호스팩은 ‘형님’ 격인 한국제6호·7호 스팩 모두 청산된 전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합병 전후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고 조언한다. 개별 스팩에 대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반드시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하라는 것이다.

강대석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합병상장 발표 전까지는 어떤 기업과 합병할 지 알 수 없고 합병시기도 알 수 없다”며 “스팩 구조상 어떤 기업에 투자할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고용유지지원금 만료 임박... 항공사 ‘실업공포’ 엄습

‘유급휴직 180일’ 이달 말 종료
무급휴직 전환... 이미 신청 받기도
평균임금 70%서 50%로 낮아져
국토부 “고용부와 연장 등 협의 중”

항공업계가 무급휴직으로의 전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용불안이 점차 커지고 있다. 올해에도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여전히 코로나 여파로 인해 지난해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인 ‘락다운(국가봉쇄)’으로 인해 대부분 수익을 내는 국제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띄우지 못하고 주기해놓은 항공기로 인해 수익 없이 임대료 등 고정비용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부분 항공사는 연이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LCC(저비용항공사)는 올해 1분기 영업손실만 도합 약 2420억 원을 냈다. ▲제주항공 -860억 원 ▲진에어 -601억 원 ▲티웨이항공 -449억 원 ▲에어부산 -472억 원 ▲플라이강원 -39억 원 등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올해 1분기 1245억 원으로 유일하게 국적사 중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항공업계를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포함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및 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유급 휴직과 무급휴직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달 말 현재 지원받고 있는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이 종료된다는 데 있다.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끝나도 무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만,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줄기 때문이다. 유급휴직과 무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각각 평균임금의 70%, 50%를 지원한다.

대부분 항공사는 당장 7월부터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라도 받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이미 신청을 받았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개시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무급 휴직 전환 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도 한 사업장 기준 최대 270일 동안만 인건비가 지원돼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 못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원 기

간 중 일부 항공사는 약 60일을 지난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도 약 7개월의 지원 기간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9월경에도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종료되던 직전 고용노동부에서 60일의 기간 연장을 결정한 만큼 이번에도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대부분 항공사의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고용부에서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해 11월까지 지급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의 연장 여부 관련 “고용노동부와 현재 협의하고 있다. 항공사들의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끝나기 전인 6월 안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항공협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달 31일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라며 “6월 말이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돼 항공 중사자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유급 지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재차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자연실업률 3.9%...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

한은,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 활용
여성·노년층 자연실업률 상승 견인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노년층이 실업률을 끌어올렸다.

1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 ‘구

직기간별 실업자 분포를 이용한 자연실업률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은 2020년 중 3.9% 내외로 산출됐다.

자연실업률은 2000년대에는 하락한 반면 2010년대에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금융위기 이후 상승은 신규 유입 증가보다 기존 실업자의

유출 감소가 더 영향을 미쳤다.

한은 오삼일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최근 고용상황을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웃돌면서 노동시장 유류수준이 크게 높아났다”며 “팬데믹이 자연실업률 추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추가적인 자료가 확보돼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직기간별로는 구직기간 4~6개월

의 장기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상승을 견인했다. 보통 단기실업자는 노동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과 관련성이 높으며, 장기실업자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연관돼 있다.

성별·연령별로는 여성 및 노년층의 자연실업률 상승이 전체 자연실업률을 밀어올렸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노년층의 노동시장 잔류 경향이 늘어나면서 영향을 미쳤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은행권 건전성 양호 1분기 BIS비율 상승

국내 은행의 1분기 자본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85%, 13.93%, 15.34% 및 6.48%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0.40%포인트, 0.47%포인트, 0.34%포인트 상승했다. 규제비율인 보통주자본 7.0%,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를 모두 웃돌았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의 경우 기본자본이 늘면서 0.0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자산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확대, 증자 등으로 자본이 더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모든 국내은행이 완충자본(자본보전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을 포함한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1분기에 바젤Ⅲ 최종안을 도입한 하나와 내부등급법을 승인 받은 DGB의 위험가중자산 규모가 크게 감소해 자본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대출자산이 크게 증가한 케이·BNK·수협 등 6개 은행은 자본비율이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의 경우 자산 증가속도가 빠르고 보통주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본비율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자본관리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